

“도전하는 사람만 성취할 수 있습니다”

도봉산과의 인연

저와 산(山)과의 인연은 세 살때 도봉산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산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죠. 그 후 2000년 5월까지 줄곧 도봉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산은 제게 삶의 터전이며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내려가기 싫어도 학교를 가려면 내려와야 되고, 또 집으로 가려면 산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전기도 없고, 모든게 불편한 산속에 사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으며, 부모님을 심하게 원망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산 중턱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물자를 지게로 20분 정도 매일 날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의 반복이 오늘날에 약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산 등반을 할 때면 매번 30kg 이상 되는 짐을 지어 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잘돼 다른 대원들보다 적응이 빠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등에 안지면 허전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산에 살게 해준 부모님께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장내 웃음) 버릇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저는 산을 많이 타서 그런지 평지를 걸어가거나 런닝머신 바닥으로 다니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골목과 경사가 있는 산비탈이 힘은 들어도 오히려 편하지요. (장내 웃음)

도전은 내 인생의 뿔 수 없는 운명

제가 첫 고산 등반을 한 것은 1985년부터였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8848m)가 첫 등반지였습니다. 자신감 하나만 믿고 무턱대고 달려들었습니다. 보통 등반을 가면 원정대가 꾸려집니다. 일종의 조직이 형성되지요. 식량담당, 장비담당, 수송담당 등 각자 임무가 주어집니다. 등반에 앞서 조직적인 훈련과 다양한 경험을 미리 쌓게 됩니다. 하지만 첫 등반 당시 대원들은 모두 고산 등반이 전혀 없는 무경험자들이었습니다.

훈련과 경험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고산 등반은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3개월치 식량과 장비 등 사소한 것 모두를 세심하게 챙겨야

참여불교 ‘엄홍길의 정상경영학’ 특강

참여불교재단(상임대표 김동진)은 7월 3일 장충동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제 4차 리더스포럼을 열고 강사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을 초청, 특강을 마련했다. 지난 5월 31일 로체샤르(8400m) 정상에 오르면서 세계 최초로 8000미터급 16좌 등정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재가단체가 마련한 자리다. 엄홍길 대장(48)은 이 자리에 참석한 200여 회원들 앞에서 그 동안의 등정 과정을 전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원정대원들간에 서로 친절하게 대처하다보면 결국에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산에서는 ‘나’란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라는 공동체만 있을 뿐입니다.

여담 하나 해 드릴까요? 국내에 있는 산을 올라 가려면 큰돈이 필요 없지만 8000미터급 산을 오르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에베레스트는 네팔 쪽에서 올라가면 1인당 약 1천 2백만원 정도의 일장료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식비, 운송비, 항공료 등을 합치면 수익원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첫 등반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감과 패기를 통해 극복하며 일단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위에서 “미쳤고” 모두들 비웃었습니다. 결과는 역시 실패였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두 번째 다시 올라갔습니다. 원인분석을 철저히 했으며, 준비도 나름대로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산은 우리의 정상정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등반하던 셀카(집꾼)가 7000미터 지점에서 추락해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동료의 죽음으로 인해 산에 오르면서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죽어가는 동료들 보며 삶과 죽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위대한 대자연앞에 인간은 한낱 나약한 존재라는 것도 깨

달았습니다. 극한상황에 몰리다 보면 어느 한순간 정상을 밟는 것이나 못 밟는 것이나 대자연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하찮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에 올랐다고 나에게서 변한 것이 있을까요? 그저 해냈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로 한동안 산을 쳐다보기조차 싫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전은 내 인생에서 뿔 수 없는 운명이며, 한 번 시작한 이상 끝까지 해보고 그만두자는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그곳엔 산이 없다

1988년 세 번째 도전 끝에 드디어 벽한 감동을 느끼며 정상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박수)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

어릴적 산 속 생활이 오늘날 약

자연은 욕심 가진자 용납 안해

적인 다리 이 악물고 재활치료

실패 경험 있었기에 16좌 완등

이란 걸 알았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항상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도 마찬가지로 뜻이 등반도 생각한 대로 뜻대로 되는게 아니었습니다. 그 후 6번이나 실패하는 아픔을 다시 맛봐야 했습니다. 산과 자연은 절대로 욕심을 가진 인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산을 내려와서 산을 보면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산에 오르면 그곳엔 산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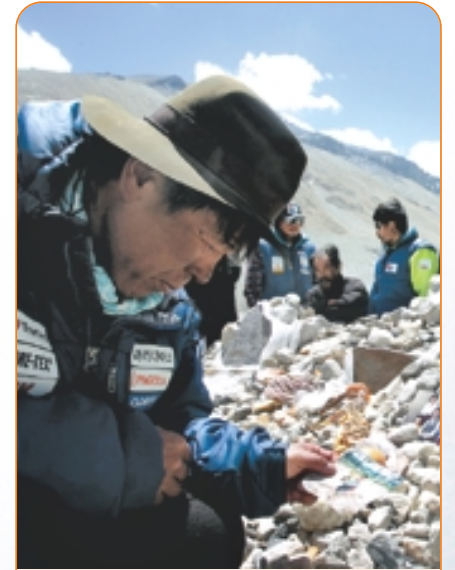
1985년부터 16년동안 오른 히말라야 8000미터급 산이 14개나중에 두개 더 있다 었지만 그 기록 뒤에는 분명 14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을 따지면 셀 수도 없습니다. 이틀동안 눈 속에 갇혀 비바구(노숙)를 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남가파르밧 원정때는 동상에 걸려 엄지발가락 한 마디와 두 번째 발가락 일부를 잘라야 했습니다. 강풍에 몸이 날아가 죽을 뻔한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16년동안 진행제나 다름없었던 8명의 동료들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던 일을 수 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988년 네 번째 시도한 안나푸르나 등정 길에서 정상을 눈앞에 두고 미끄러진 셀카를 구하려다 같이 추락해 오른쪽 발목이 180도 돌아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절벽에 매달린 채로 다리를 다시 뽑아 돌려 가깝스로 하산했습니다. 말랑거리는 다리를 대나무로 부목해 2박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죽는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산하면서 살아있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수없이 되뇌이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내려와 보니 입술이 터지기까지 했습니다. 산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이 도와 줄 수가 없습니다. 살려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 치료 받는데 병원에서 다시는 산에 오를 수 없다는 말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이를 악물고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한 끝에 10개월만에 다시 안나푸르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성한 발로도 네 번이나 실패했던 그 산에 아픈 다리를 이끌고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박수)

만일 제 등반과정이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이루어 졌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16좌 완등이란 꿈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더 강해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했던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매달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 분 앞에 서서 얘기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전은 존재에 대한 이유이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도전을 끝낸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열정 없이 결코 성공도 없습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 그 도전을 위해서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일어나갑시다.

정리=김주일 기자



16좌 완등 등반일지

연도	산 이름(높이)
1. 1988	에베레스트(8848m)
2. 1993	초오유(8201m)
3. 1993	시야파르(8012m)
4. 1995	로체(8516m)
5. 1995	마칼루(8463m)
6. 1995	브로드피크(8047m)
7. 1996	다울라기리(8172m)
8. 1996	마나슬루(8156m)
9. 1997	가셔브롬(8068m)
10. 1997	가셔브롬2(8035m)
11. 1999	남가파르밧(8126m)
12. 1999	안나푸르나(8091m)
13. 2000	K2(8611m)
14. 2000	칸첸중가(8586m)
15. 2004	알롱강(8505m)
16. 2007	로체샤르(8400m)

엄홍길 대장은?

- 1960년, 경남 고성 출생
- 한국외국어대 중국어 학사
- 2000년 히말라야 8000m 고봉 14좌 완등
- 2001년 체육훈장 청룡장 수상
- 2004년 히말라야 8505m 알롱강봉 15좌 완등
- 2006년부터 상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석좌교수로 재직
- 2007년 히말라야 로체샤르 16좌 완등
- 저서 <8,000M의 희망과 고독>
- <엄홍길의 약속> <거친산 올랐던 독재자가 된다> 등



현대불교 자료 사진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

어려운 일도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일 마다 꼬이고 안되는 사람이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잘못 들어 놓은 발로 공공거리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비롯하여 도박, 교통사고, 실족사고 등 마음은 안하고 안가야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간다. 어두운 밤 길도 알고 가면 쉽고 모르고 가면 화를 당하듯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산행, 개주업, 운동화, 조깅화, 여행용으로도 최고...

만트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만트라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만트라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만트라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라꾸라꾸 침대

접이식 라꾸라꾸 온열침대

국내 접이식침대의 대명사 라꾸라꾸에서는 2007년형 모델을 출시하고 할인판매에 돌입했다. 라꾸라꾸는 접이식 침대의 최대장점인 이동성과 공간활용성과 경제적인 면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침대란 오랜시간 사용하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요한 가구가이기 때문에 편안함과 안락함이 선행되어야 하고 얼마나 수면건강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였는가는 접과 공간활용에 필요한 기능성과 이동성을 중시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제품은 매트와 재질을 항균, 방취처리를 하여 매우 위생적이어서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판매가격은 온열기능이 내장된 1인용 싱글은 189,000원 2인용은 218,000원이며 일반형은 1인용 138,000원 2인용은 158,000원에 특별할인판매 하고 있다.

정품

① 인열: 83cm X 198cm X 31cm
② 인열: 123cm X 198cm X 31cm

① 인열: 83cm X 198cm X 31cm
② 인열: 123cm X 198cm X 31cm

① 인열: 83cm X 198cm X 31cm
② 인열: 123cm X 198cm X 31cm

① 인열: 83cm X 198cm X 31cm
② 인열: 123cm X 198cm X 31cm

모기, 깔다구 퇴치램프!

여름이면 모기, 깔다구, 야행성 날벌레로 고생하는 사람이 수 없이 많다. 가려움으로 살이 짓무르는가 하면 모기, 깔다구로 야외 영업장에서 손잡기도 힘들다. 야외나 실내에서 모기약을 치거나 향을 피우면 건강에도 나쁘고 아이들이나 알레르기,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한층 합작으로 에다라이트에서 모기, 깔다구, 날벌레를 퇴치하는 전구를 개발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모기, 전구만 바꿔기우면 간단히 해결

다. 실내 또는 야외활동이나 야외영업장에서 간단히 전구만 바꿔기우면 절전은 물론 반경 4-5m에는 야간해충이 얼씬도 않는다. 이는 태양광을 이용한 원리로 야간해충이 극도로 싫어하는 가시광선의 파장 때문이다. 시달, 가든, 펜션, 전원주택, 야외레스토랑 포장마차, 우사, 축사 등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하며 보기에 좋은 야간 조명등으로도 효과적이다. 가격은 25W는 22,000원, 55W는 48,000원 (택배비 별도)

① 인열: 83cm X 198cm X 31cm
② 인열: 123cm X 198cm X 31cm

① 인열: 83cm X 198cm X 31cm
② 인열: 123cm X 198cm X 31cm

① 인열: 83cm X 198cm X 31cm
② 인열: 123cm X 198cm X 31cm

① 인열: 83cm X 198cm X 31cm
② 인열: 123cm X 198cm X 31cm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잠옷! 「천하무적」

옷가네 토종참옷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서울대학교 안전성 임상완료

옷이 좋다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옷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 줄은 알지만 옷값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옷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신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년여에 걸쳐 안전성 임상실험을 완료하였다.

① 인열: 83cm X 198cm X 31cm
② 인열: 123cm X 198cm X 31cm

① 인열: 83cm X 198cm X 31cm
② 인열: 123cm X 198cm X 31cm

① 인열: 83cm X 198cm X 31cm
② 인열: 123cm X 198cm X 31cm

① 인열: 83cm X 198cm X 31cm
② 인열: 123cm X 198cm X 31cm

구입법 꼭 확인...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은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난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옷가네 참옷농원
무로전화: 080-838-3366